

과업 13: 총체적 건강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총체적 구원의 표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갖도록 제자화 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세계가 점점 더 정신 건강 이슈를 인정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이 없어짐에 따라, 총체적 건강 개념은 그늘에서 세속 및 종교 기관 모두의 중심 관심사로 옮겨졌다. 코로나19는 신체적 건강에서 정신 건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글로벌 및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했다. 총체적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요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G20 국가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넘어 지도자들이 높은 수준의 탈진을 경험하는 기독교 조직까지 확대된다.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부르심은 교회 안팎에서 정신적, 신체적, 영적 건강을 추구하고 우리가 일하고 살고 놀이하는 곳에서 온전한 사람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적인 건강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

협업 질문

- 선교/교회 조직/사역자는 어떻게 직원과 공동체의 탈진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가?
- 조직, 선교적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시민 서비스(civic services)와 협력할 수 있는가?
- 악화되는 공공 건강과 교회의 정신 건강은 어떻게 복음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고/또는 복음적인 삶과 증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동시에 돌보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위 주제

- 정신 건강과 대위임령을 위한 현명한 실천
- 신체적 건강과 대위임령을 위한 현명한 실천
- 시민 파트너와의 조직적 협업
- 건강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교/교회 조직/선교 비즈니스의 협업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글로벌 건강'과 '정신 건강'에 관한 논문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